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그 지긋지긋한 ‘악마의 주술’ 못 떨쳐내고...

<DJ가 지역감정을 지칭하던 표현>

■ DJ와 지역주의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지역주의’란 말을 평생 싫어하고 살았다. 그에게 지역주의는 천형이자 족쇄였다.

유독 화합을 강조했다던 김 전 대통령은 그 실천 방안으로 지역주의 타파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역주의의 청산이라는 숙제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이 됐다.

DJ가 지역주의의 수렁에 들어간 것은 박정희 정권과 연관이 깊다. 박 정권은 호남지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차별과 배제를 시도했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이 가속되면서 지역간 격차와 호남지역의 정치적 소외가 늘어나고 지역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실제로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역주의는 없었다. 1963년 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박정희 후보는 전남에서 52.5%를 얻었고 야당인 윤보선 후보는 33.0%를 얻었다. 경북에서는 박정희 후보 50.6%, 윤보선 후보 32.9%를 얻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그 성과가 나오면서부터 영남지역은 권력의 수혜지역으로 바뀌고 호남은 정체가거나 상대적으로 낙후해 갔다.

이에 호남인들은 응어리진 답답한 마음을 풀 어줄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를 간절하게 원했다. DJ는 이 요구에 가장 근접한 정치인이었다.

DJ는 1971년 대선 당시 박정희 후보와 대결 하였을 때 호남에서 58.6%의 지지를 얻었고 영남에서 23.3%를 얻었다. 반면 박정희는 영남에서 71.9%의 지지를 얻었고 호남에서 32.8%를 얻었다. 영남에서 지역주의의 표가 심했던 것이다. 물론 이는 당시 박정희 후보 측이 투표 3일 전 승승장구하는 김대중 후보를 잡기 위해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전단지들 대거 살포하며 영·호남 대결구도로 몰아간 데 원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결국 DJ는 지역주의 때문에 패했다.

하지만, 이후 선거에서 DJ는 지역주의를 역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DJ가 내세운 1987년 대선 때 ‘4자 필승론’, 1995년 지방선거 때 ‘지역등권론’ 등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선거전략이었다.

4자 필승론은 호남은 DJ, 부산·경남은 김영삼 전 대통령(YS), 대구·경북은 노태우, 충청은 김종필 전 총재(JP) 등이 나누어 먹고, 수도권에서 이기면 DJ가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DJ는 대선에서 참패했다.

이후 1990년 노골적인 호남 배제 구도인 소위 3당 합당이 이뤄지면서 DJ는 세 번째 대선 패배를 맞았다.

1992년 대선 패배 후 정계를 은퇴했던 DJ가 19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지역등권론을 들고 등장한다. 호남·충청권이 영남과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지역등권론은 호남 지지세력의 결집을 이끌어 냈고 새로이 창당된 새



1998년 4월30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대구시청을 방문, 문화갑 시장의 인내를 받으며 업무보고장으로 향하고 있다. <매일신문 제공>

71년부터 대선때마다 발목 최대 피해 대통령 당선후 인사 탕평·동진정책... 각종 타파 노력 불구 ‘미완의 과제’로

정치국민회의는 15대 총선에서 79석을 얻으며 제 1야당이 됐다.

DJ는 나아가 1997년 충청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 JP와 손을 잡고 15대 대선에서 승리한다. 아이러니 하게 지역주의 혜택을 본 것이다. 하지만, 당선후 DJ는 스스로 ‘악마의 주술’이라던 지역주의의 타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15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어떠한 차별과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나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동진정책’을 구사하며 영·호남 화합의 기틀을 닦으려 했다.

DJ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이었던 경북 출신 김종권씨를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는 ‘과격 인사’를 단행했다. 김 전 실장은 11대 민정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전형적인 5, 6공 정치인이었

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구여권 출신인 김 전 실장을 과감하게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데 이어 2000년에는 민주당 대표로까지 임명했다.

DJ는 또 새천년민주당 내에 ‘동남발전특위’를 구성,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겼으며 영남 출신인 김기재·김정길씨를 장관에 기용하고 경북과 출신인 박순용·이명재씨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대구 발전 계획인 밀라노프로젝트에 수조원의 예산지원을 한 것도 동진정책의 일환이었다. 특히, 부산 출신인 노무현 당시 의원에게는 동남발전특위 위원장을 넘어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기고 나아가 대통령 후보에게까지 오르게 지원하며 지역주의의 타파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지역주의의 장벽은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다. 지역주의의 명암을 극명하게 경험한 DJ는 이 장벽을 반드시 허물라는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복지기자 jkpark@

■ DJ 지역주의 해소 어록 “대통령 못하면 못했지 동서분단 방치 못한다”

▲“신한국당 최고지도자가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나를 남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도 김해 숲씨로 경상도 사람이다. 나의 두 머리도 부산에서 태어났다”(97년 11월20일 부산일보 대선후보 초청강연회에서)

▲“지역주의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 대통령을 못하면 못했지 절대로 동서분단을 방치할 수 없다”(98년 6월30일 인촌강좌 특강에서)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 동서로 갈라지고, 계층간에 대립하고, 세대간에 갈등해서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99년 12월2일, CBS 비전21 대회에서)

▲“동서의 화합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양상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1998.4.30 대구·경북 국가기도회 연설)

“내 몸의 반쪽”

3달 간격 연이은 서거 DJ·노무현 애증 점철된 안타까운 인연 회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애증이 점철된 안타까운 인연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에 대해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며 깊은 충격과 슬픔을 나타냈다.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는 아흔을 내다보는 DJ의 허약한 육신을 흔들었고 결국 두 달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게 됐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는 남달랐다. ‘영남 이상주의자’와 ‘호남 현실주의자’의 이질적 만남이었지만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집념과 불굴의 의지만큼은 닮은꼴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개혁 및 동서화합 의지를 높이 평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또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김 전 대통령이 은밀하게 노무현 후보를 도왔다는 것은 공공연

한 비밀이 됐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후임자인 노 전 대통령에게는 계승의 대상이자 극복할 상대였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승계했지만 3김(金)시대의 낡은 유물인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는 그가 필생의 과제로 생각했던 정치개혁의 핵심 화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노 전 대통령의 서울역 분향소에서 “나라도 그런 결단을 했을 것”이라며 걱정을 토해냈고, 이튿날 영결식에서는 권양숙 여사의 손을 부둥켜 잡고 오열하며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쏟아 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두 분은 애증이 점철되는 정말 특별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이제 두 사람이 사후에서라도 해후, 이승에서 다 풀지 못한 인연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골이 모셔졌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정토원 선진규 원장(왼쪽)이 19일 오전 법당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을 모시고 분향소를 마련한 직후 술잔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글 쓰는

漢字
중국어 간체자

특수 학습법 공개

저작권 등록

이런 이유로 원망이 자발적 됩니다.

- 필자성 인식성** : ... (text)
- 복합성** : ... (text)
- 포용성 및 개방성** : ... (text)
- 대안성 (추진책)** : ... (text)

필수는 3,000한자, 필수한자, 중국어간체자 동형성 FMP 출시 예정.

한중일 교육

www.fhbf.com.hk | 02)3775-2321(이수만선생) | 02)3775-2320(이수영선생)

획기적 漢字·중국어간체자 특별 강사 양성 연수(전문후무)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 공무원, 대학 강사 등 중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을 위한 특강입니다.

모집과목 (총 1개)

1. 漢字·중국어간체자 기본교육
2. 漢字·중국어간체자 고급교육
3. 漢字·중국어간체자 고급교육
4. 漢字·중국어간체자 고급교육
5. 漢字·중국어간체자 고급교육
6. 漢字·중국어간체자 고급교육

